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공존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WINTER
2024 Vol. 70

한국에 살아오

평화와 희망을 그리는 화가
우크라이나 출신 마리아 첼노주코바

현장특독

함께 걷고, 함께 나누는 특별한 하루
제11회 한마음 걷기 축제

출입국 사람들

출입국 빅데이터 꿈나무
데이터 분석관의 하루

한국생활 사랑방

한국 생활의 첫 관문
출입국 민원 절차 쉽게 이해하기

KOREA



IMMIGRATION



SERVICE



작가명 : Dwi Astini

작품명 : 눈 덮인 한강

* 2023년 세계인의 날 기념 제1회 사진 공모전 장려상 수상작

공

존

하

는

시

선

하얀 눈으로 덮인 세상은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간직한 가슴 시린 겨울의 기억이 있겠지요.
이번 겨울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추위를 녹여보세요.

그 온기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차가운 겨울을 이겨낼
힘이 될 것입니다. 공존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느끼며,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Editor's Letter

공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가운 바람이 한 해의 끝자락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맘때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향한 희망으로 마음을 채우기에 더없이 좋은 시기입니다. 2024년에도 변함없이 공존을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본부는 저출생과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며, 경제 성장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특히, 9월 26일에는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을 발표, 산업계 구인난과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 11월 27일에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발표하여 경제 성장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다졌으며, 12월 1일에는 지역 맞춤형 인재 유치를 목표로 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해 지방 경제와 산업 활성화 및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유입 선별과 통합 촉진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사회갈등을 예방하여 국민과 외국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도 독자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Dear readers,

The cold snap seems to signal the end of the year. This is the perfect time to reflect and fill our hearts with hope for the coming year. I deeply thank our readers for your unwavering support throughout 2024.

This year,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KIS) has developed various policies to address low birth rates and prevent regional areas from disappearing due to population decline while seeking ways to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and regional development. Notably, on September 26, we announced the "New Immigration Policy," introducing a new paradigm for the upcoming era of 3 million foreign residents. This policy is part of our ambitious efforts to proactively respond to the growing demand for migrant workers, driven by labor shortages across industries and the risk of local extinction.

Furthermore, on November 27, we announced specific implementation guidelines for the New Immigration Policy, enhancing the policy framework for economic growth and regional development. On December 1, the "Local Government Visa Pilot Program," set to be implemented in 2025, was launched with the ambition to attract foreign talents in line with local needs. This will be a substantial support measure to help revitalize local economies and industries while ensuring stable settlement of foreign residents in local communities.

The KIS will remain committed to enhancing regional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by attracting talented individuals, while protecting job opportunities for Korean nationals and preventing social conflicts through selective immigration and promotion of integration. With the goal of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both Korean nationals and foreign residents feel safe and secure, we will continue our dedication. As we approach 2025, I sincerely wish that all your plans come to fruition, and I hope for your good health and happiness.

Contents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4. Winter / Vol. 7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immigration.kr
유튜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카카오 채널
http://pf.kakao.com/_gxbpPT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발행일 2024년 12월 13일
발행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전화번호 02-2110-4019
기획·편집·디자인 이루다플래닛(주) 1566-7699



www.immigration.go.kr
웹진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People +

06

한국에 살아요

평화와 희망을 그리는 화가,
우크라이나 출신 마리아 첼노주코바

10

출입국 돋보기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대비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14

현장 특특

함께 걷고, 함께 나누는 특별한 하루
제11회 한마음 걷기 축제

06



Place +

18

출입국 사람들

출입국 빅데이터 꿈나무
전경민 주무관의 하루

22

마이 코리아

즐기세요 연구자의 도전과 성장
라마크리시나 수레시 교수

26

출입국 인포

체류외국인을 위한
각종 신고 의무 안내

28

KIS News

Play +

30

한국생활 사랑방

한국 생활의 첫 관문
출입국 민원 절차 쉽게 이해하기

34

풍경속으로

120년 의료, 선교 역사를 만나다

38

내 손안의 KIS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SNS 소식

39

출입국 엽서

'KIS 1345' 로 물어보세요!

40

EVENT

공존 공감 & 퀴즈 타임

18



30



평화와 희망을
그리는 화가
마리아의 도전과 성장

우크라이나 출신 화가

마리아 첼노주코바

우크라이나 리시찬스크 출신 마리아 첼노주코바는 화가이자 배우, 모델로 활동하며 한국에서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이다. 전쟁이라는 큰 고통을 직접 겪은 그녀는 국경과 인종을 넘어 모두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로 한국 생활 9년 차를 맞은 그녀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Chernozhukova Mariia

‘키다리 아저씨’와 함께 시작된 한국을 향한 여정

우크라이나 리시찬스크에서 태어난 마리아 첼노주코바.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가져온 비디오 테이프에 수록된 한국 영화를 처음 접하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배우들, 아늑하고 편안해 보이는 도시 풍경, 그리고 뜻은 몰랐지만 부드럽고 예쁜 소리로 느껴졌던 한국어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영화를 좋아하는 어린 소녀였던 마리아는 언젠가 영화 속 나라를 꼭 방문하겠다는 꿈을 품게 되었다. 그녀가 한국에 대한 환상과 꿈을 꾸게 한 영화가 바로 ‘키다리 아저씨’였다. 어릴 때는 일본 영화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커서 알아보니 배우 ‘연정훈’ 주연의 한국 영화였다. 지금은 BTS나 블랙핑크 같은 K-POP 그룹 덕분에 한국이 많이 알려졌지만, 당시만 해도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실제로 리시찬스크에서 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또래 중에 그녀 혼자였다.

영화로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음악과 드라마로

확장되었다. 마침 동방신기, 빅뱅 등 글로벌 K-POP 그룹들이 등장하면서 한국에 대한 그녀의 애정은 더욱 깊어졌다. 대학에 진학한 후, 그녀는 오랜 꿈이었던 한국행을 이루기 위해 한국 정부 장학금 프로그램(KGSP)에 지원했다. 운 좋게도 우크라이나 대표로 선발되어 홍익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며 석사 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

오랜 꿈을 이루며 한국에 왔지만,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우크라이나와 비교해 음식은 너무 매웠고, 언어도 생각만큼 빠르게 늘지 않았다. 처음 1년은 언어를 배우기 위해 영남대학교 외국인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힘든 시기이기도 했다.

“한국어도 영어도 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존댓말 구분도 잘 안 됐고, 지금도 ‘이’ 발음은 마음대로 안 돼요. 게다가 지역 특성상 사투리가 심해서 학교 밖에서는 의사소통이 힘들었죠. 그 당시엔 영어도 서툴러서 외국인 친구들과의 소통도 쉽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리아를 힘들게 한 요소 중 하나였다. 부모님의 지원 없이 오롯이 혼자 힘으로 한국행을 준비했던 터라 늘 돈이 부족했다. 학비는 장학금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야 했다. 간간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마련했지만, 학생 비자로 일을 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했고 이 과정이 쉽지 않았다. 대학생 시절, 마리아의 평균 한 달 생활비는 30~40만 원. 그마저도 물감을 사는 달이면 고작 20만 원으로 한 달을 보내야 했다.

편의점에서 과자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고, 아예 세 끼를 먹지 못하는 날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힘이 되어준 건 한국에서 사귀어 소중한 친구들이었다.

“영양실조로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보살펴 줬어요. 한국어 공부도 적극적으로 도와줬고요. 친구들도 졸업 논문 준비로 바빴을 텐데, 계속 안부를 물어보고 돌아가며 제 건강까지 챙겨줬어요. 덕분에 머나먼 타국에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 곁에서 힘이 되어준 친구들과 지인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고향의 그리움을 화폭에 담아 평화를 노래하다

힘겨웠던 적응기를 지나 이제는 떡볶이 없이는 못 살 정도로 한국 음식과 문화에 완전히 익숙해진 마리아는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력이 있기도 하다. 친구와 함께 케이블TV 프로그램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를 1년 동안 진행하며 한국 곳곳을 여행하고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다. 또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친구와 음식로 출연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특히 이웃집 찰스에 게스트로 출연했을 때는 한국에 대한 꿈을 꾸게 해준 영화 ‘키다리 아저씨’의 주인공, 배우 연정훈을 직접 만나 팬심을 고백하며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한국에서 시각디자인을 공부한 마리아는 본업에서도 독창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기성 작가들과 함께 구스타프 클림트 박물관과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룹 전시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 5월에는 개인



전시회를 열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알렸다. 마리아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치유’이다. 한국행을 결심하기 전, 고국에서 돈바스 전쟁의 잔혹한 참상을 직접 목격한 그녀는 전쟁이 남기는 비극과 상처, 그리고 슬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그녀의 작품에 고스란히 담겨 보는 이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전하고 있다.

“2022년, 고향인 루한스크가 공습으로 파괴되면서 부모님은 지금도 내륙 지역으로 계속 피난을 다니고 계세요.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고향이 폭파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 역시 큰 아픔을 겪어야 했죠. 그런 절 위로해 준 건 바로 그림이었어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 마리아의 그림은 주로 한국의 전통적이고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 되면서 그녀의 그림은 전쟁의 아픔 속에서 희망과 치유를 노래하는 따스한 그림들로 변모했다. 그녀는 작품을 통해 전쟁과 평화, 혼돈과 조화 사이의 이중성을 탐구하며, 평화의 따뜻함과 전쟁의 슬픔을 섬세하게 담아내고 있다. 특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서 탄생한 작품들에는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노란색이 주로 사용되며, 우크라이나의 국화인 해바라기가 자주 등장해 고향에 대한 사랑과 평화를 향한 염원을 전하고 있다.

마리아는 자신이 그림을 통해 전쟁의 아픔을 치유받았던 것처럼, 자신의 작품이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과 행복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쟁과 차별이 없는 세상,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행복하게 만끽할 수 있는 세계. 그것이 제가 꿈꾸는 유토피아입니다. 제 그림을 보는 이들이 그 유토피아 속에서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운 일상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없이 성장하며 꿈을 그리는 한국 생활

마리아는 세계 평화를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리며,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권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주제로 한 우크라이나 특별 섹션이 마련된 서울라스퍼극제영화제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양한 외부 활동과 작품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마리아는 자신의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평화로 기억될길 바란다고 말한다. 동시에 화가로서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최근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꿈도 생겼어요. 제가 한국의 문화와 예술에 매료되었던 것처럼, 한국 학생들에게 우크라이나 미술과 문화를 다양하게 알려주고 싶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예술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더 넓은 세상에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리아는 한국에서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새롭고 즐거운 도전의 연속이었다고 말한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한국생활이 자신에게는 ‘끝없는 성장의 여정’이었다는 것이다. 전쟁의 아픔을 이겨내며 언제나 밝고 활기찬 얼굴로 하루를 씩씩하게 살아가는 마리아 첼노주코바.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긴 그림들이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넘어 전 세계에 평화와 희망의 빛을 밝히는 날을 기대해본다.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지난 9월 26일, 법무부는 선제적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입 선별과 통합 촉진을 통해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사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을 발표했다. 경제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과 이민자의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입국·이민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네 가지의 주요 정책 과제를 설정했다.

1. 우수인재 유치 트랙 다변화

① Top- Tier 비자 신설

- 인공지능·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의 고급인재 유치
- 우수인재와 동반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해 인재 유치 경쟁력 강화에 기여

② 청년 드림 비자 신설

- 잠재력이 높은 한국전 국제연합(UN)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문화체험 기회 부여

③ 유학생 졸업 후 구직·취업 연계 강화

- 국내 우수대학 과학기술 인재에게 영주권·국적 부여 혜택 확대 추진
- 졸업 후 구직기간 확대(2년→최대 3년) 및 취업 허용 범위 확대(제조업 등 구인난 심각 분야)를 통해 인적자원 활용

④ 전문인력 배우자 단순노무 취업 허용

-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추면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하여, 우수인재의 안정적인 가족단위 체류와 통합을 지원



2. 지자체·민간 수요를 반영한 비자 거버넌스 운영

① 비자 제안제 도입

- 경제계 수요 반영 절차 제도화를 통해 정책 실용성 및 현장성 제고
- 제안 검토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관합동심의기구' 신설

②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확대 및 광역형 비자 도입

-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자체로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확대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광역형 비자' 도입 추진

③ 계절근로자 사업 지원

- 지원 전문기관 지정,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자체의 사업 운영 뒷받침
- 숙련성을 갖춘 근로자에 전자·복수비자를 발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성실 참여 유도

3.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① 외국인 청소년 자립 지원

-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고, 학업·취업 지원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성장 촉진

② 입국 전·후 사회통합교육 강화

- 입국 전 사회통합교육을 통해, 입국 후 한국사회 조기적응 지원
- 체류유형별 맞춤형 교육, 안전·법질서 교육,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통해 통합 촉진

③ 지자체 통합정책 지원

- 이민자 사회통합 지수 측정·분석을 통해 중앙 정책과 지역 정책이 조화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책 개선 방향 제시



4. 과학적·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

① 과학적 분석 기반 도입규모 결정

-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비자 발급 분야 및 규모를 결정하여,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와 사회적 갈등 발생 예방

② 해외인력 도입·관리시스템 개선

- 재외공관의 비자 심사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외국인력 입국 전 검증 강화
- 외국인력 송출 관련 민간기관 등록제 법제화를 통해 불법 브로커로 인한 인신매매·취업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 예방



주요 기대효과

- ☑ 전문·기능인력 5년 내 10만 명 추가 확보 → 국가 주력산업 경쟁력 확보
- ☑ 지역 기반 비자(계절근로, 지역특화) 확대 → 지역 상주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 ☑ 유입 단계별 사회통합 강화 → 갈등 최소화, 이민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 ☑ 외국인력 선별 도입 및 체계적 규모 관리 → 국민 일자리 침해 방지

New Immigration Policy for the Upcoming Era of 3 Million Foreign Residents

On September 26,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e “New Immigration Policy” aimed at making local communities and industries competitive by proactively attracting talented individuals, while safeguarding job opportunities for Korean citizens and preventing social conflicts through selective immigration and efforts to promote social integration. Guided by the vision of creating a new immigration policy paradigm that fosters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growth of local communities while benefiting both citizens and immigrants, four key policy priorities have been identified:



01. Diversify talent acquisition tracks

- ① Introduce “Top-Tier Visa”
- ② Introduce “Youth’s Dream in Korea Visa”
- ③ Strengthen post-graduation job search and employment connections for international students
- ④ Permit spouses of skilled workers to take on non-professional jobs

02. Operate visa governance that responds to the need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 ① Introduce a “Visa Proposal System”
- ② Expand the eligibility for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Program” and introduce “Local Government Visa”
- ③ Support seasonal worker programs

03. Strengthen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 ① Support the independence of foreign youth
- ② Strengthen social integration education before and after entry
- ③ Support the integration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04. Develop a scientific and systematic approach for introducing foreign workers

- ① Determine the scale of foreign workforce introduction through scientific analysis
- ② Improve the system for introducing and managing foreign workforce



Expected Outcomes

- ✓ Secure an additional 100,000 professional and skilled workers within five years
→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national core industries
- ✓ Expand local community-based visas (Seasonal Worker Program, Regional Specialized Visa Program)
→ Increase local resident population and revitalize local economies
- ✓ Strengthen social integration at each entry stage → Minimize conflicts and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immigration policies
- ✓ Selectively introduce and systematically manage the scale of foreign workforce
→ Ensure the employment of Korean nationals

함께 걷고, 함께 나누는 특별한 하루



제11회 한마음 걷기 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 상담

상쾌한 가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는 10월, 초록빛 나무들이 형형색색의 가을옷으로 갈아입은 계절을 맞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하 서울청) 옆 양천공원에서 '제11회 한마음 걷기 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 행사가 열렸다. 국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약 1,200명이 사랑하는 이들과 손을 맞잡고 웃음꽃을 피우며 특별한 산책을 즐겼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한 이 행사의 생생한 현장을 담아보았다.



가을 하늘 아래, 한마음으로 걸으며 소통하다

‘한마음 걷기 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이하 ‘한마음 걷기 축제’)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며 어울리는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재한외국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기획된 행사다. 다양한 내·외국인들이 함께 즐기는 서울청의 주요 행사로 2011년부터 이어져 왔다. 제1회부터 제10회까지는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공원’에서 열렸으나, 올해는 더 많은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 도심 속 양천공원에서 10월 20일 일요일에 개최되었다.

걷기 축제와 더불어 정부합동 고충상담,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건강캠프,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 부스, 태국·일본·한국 등 국가별 푸드트럭,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에 거주 중인 유학생, 이민자 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 내·외국인 1,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아침 일찍부터 개회식이 열리는 양천공원에 모였다. 참가자들은 번호표를 받고 기념품을 수령한 뒤 가볍게 몸을 풀었고, 이어 서울청 직원과 홍보대사 크리스티안(멕시코)의 공동 사회로 개회식이 시작되었다.

개회식의 첫 순서는 청소년 태권도 퍼포먼스팀인 태랑학회의 무대였다. 30여 명의 청소년 태권도 시범단으로 구성된 태랑학회는 화려한 발차기와 절도 있는 군무로 축제의 시작을 활기차게 알렸다.



개회사에서 반재열 서울청장은 “오늘날 국내 체류 외국인이 26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행사는 지역민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자는 취지로 서울의 대표적 도심의 한곳이자 서울청이 자리한 양천구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담당장 대독),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 되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신나고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큰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

이어 국회의원 황희(양천구)의원, 축제를 공동 주최한 (사)건강사회운동본부의 추무진 회장(전만복 이사 대독), 한양대학교 이기정 총장(국제부총장 겸 국제처장 김한성 교수 대독)의 축사가 이어진 뒤, 안전한 걷기 활동을 위해 서울청 홍보대사들과 사회복무요원들이 무대에 올라 국민체조로 준비운동을 진행했다. 가볍게 몸을 풀 참가자들은 출발지점으로 이동해 박 터트리기 세리머니를 즐기며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 후, 힘찬 발걸음으로 걷기를 시작했다.



모두가 함께 하는 기쁨, 한마음 축제의 순간들

걷기 코스는 양천공원을 출발해 목동 가운길을 지나 서울청 주차장까지 이어지는 왕복 2km 구간으로 곳곳에 안내 요원과 표지판이 배치되어 있어 참가자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걷기에 집중할 수 있었고, 가족, 친구와 함께 곳곳에 물든 단풍이 주는 감성을 만끽하며 도심 속 여유를 즐겼다.

도착지점인 서울청 주차장에 도달한 참가자들은 완주기념품을 수령하고 태국·일본·한국 음식을 선보이는 푸드트럭을 이용하면서 걷기 후의 허기를 달랠 수 있었다. 이후 양천공원으로 돌아온 참가자들은 공원 곳곳에 마련된 다양한 체험 부스를 자유롭게 이용하였다. 한국 전통문화 장식품 만들기와 모루인형 만들기 체험은 물론, 몽골, 일본, 키르키즈스탄 전통의상을 입어볼 수 있는 체험 부스도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청 사회통합협의회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사업 상담 부스를 열어 따뜻한 커피와 코코아를 제공하였으며, 사회통합위원회 운영하는 병원의 협조를 받아 근골격계 통증 치료를 위한 통증클리닉을 운영하여 많은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재)한국이민재단은 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교육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소개하였으며, (사)건강사회운동본부는 건강검진용 대형 버스 2대와 건강캠프 부스를 설치하여 안과, 치과, 한방 등 여러 분야 의료진이 무료 건강검진과 상담을 제공하였고,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상담원들이 통역 봉사를 하였다.

또한, 재한외국인의 실질적인 권익증진을 위한 정부합동 고층 상담도 진행되었다. 법무부는 체류, 사증, 국적 등 출입국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해 홍보와 상담을 제공했으며,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외국인 취업·근로기준법 및 귀화자 개명 허가·가정폭력 관련 이혼소송절차 등 다양한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양천경찰서 부스에서는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방법과 피해자 보호 관련 정책 상담이 이어졌고, 양천소방서 부스에서는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화재 시 대피 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안전 교육과 시현 실습 기회를 제공했다. 외국인들이 일상생활 중 겪는 어려움을 다룬 상담 주제가 많아 외국인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학교 수업에서 행사 정보를 듣고 참가하게 되었다는 한 태국 유학생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너무 즐겁다”며,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작년 한국에 입국해 한국인 남편과 함께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참가자는 “선선한 날씨 속에서 기분 좋게 산책을 즐길 수 있어 너무 만족스럽다”고 말하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참석해 놀랐다. 내년에도 꼭 참여해 기분 좋은 추억을 또 쌓고 싶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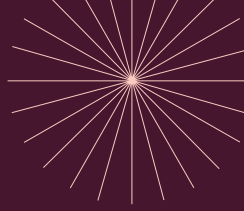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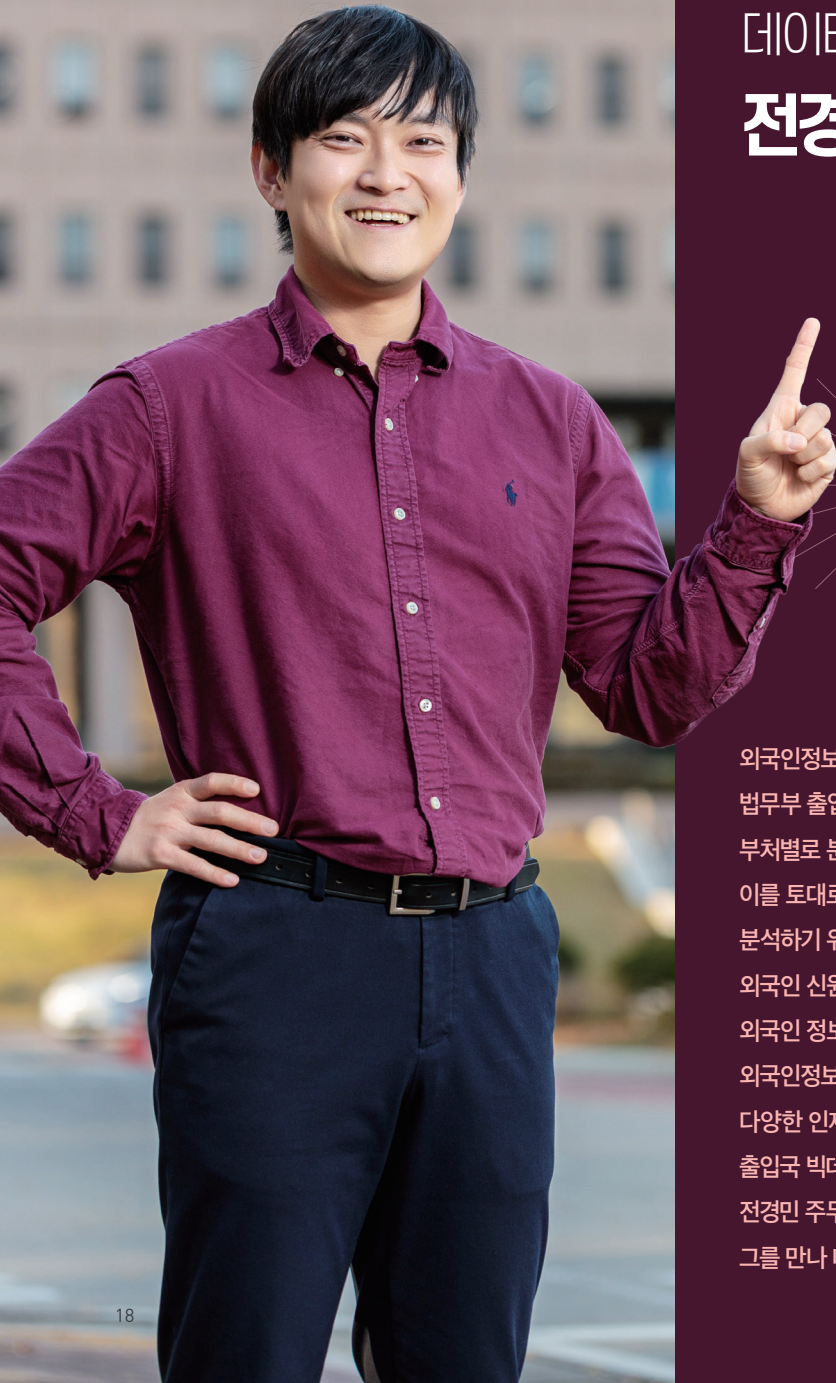
패션쇼부터 K-POP까지, 즐거움이 넘치는 무대의 향연

참가자들이 기념품에 포함된 빵과 음료를 즐기며 체험 부스를 둘러본 후, 무대에서는 축하 공연과 폐회식이 이어졌다. 축하 공연의 시작은 트럼펫, 트롬본, 튜바, 호른, 색소폰 등으로 구성된 주한 미군 군악대가 맡았다. 경쾌하고 활기찬 연주가 완연한 가을 하늘에 울려 퍼지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뒤이어 서울청 홍보대사인 사오리(일본), 테리스(미국), 크리스티안(멕시코)으로 이루어진 한글팀(한국문화를 알리는 글로벌 아티스트의 약자)이 친숙한 곡들을 신나게 연주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어서, 올해 5월 서울청 주최로 개최된 전국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던 X4! we crew와 Season팀이 열정적인 K-POP 무대를 선보였고, 중국인 유학생 호정은 화려한 중국 무술 시연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서울청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 15명이 참여한 각국의 전통의상 패션쇼는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축하 무대 사이사이, 참가자들을 위한 경품 이벤트가 진행되며 현장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서울청과 한국이민재단, 사회통합 협의회가 정성껏 마련한 선물이나 경품을 받으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SNS를 통해 행사를 알게 되어 친구와 함께 올해 처음 참석했다는 한 중국인 유학생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너무 즐겁다”고 말하며, “여성 청소년 범죄 예방이나 심폐소생술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체험과 정보가 많아 매우 유익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출입국 빅데이터 꿈나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데이터 분석관



전경민 주무관의 하루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은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소속된 부서다. 부처별로 분산된 외국인 인적정보를 표준화하고, 이를 토대로 외국인 정보를 빅데이터 기술로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해 2021년 7월 1일에 신설되었다. 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 플랫폼을 구축하며 외국인 정보 관련 빅데이터 산출 방안을 마련 중인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에는 데이터 분석에 일가견이 있는 다양한 인재들이 근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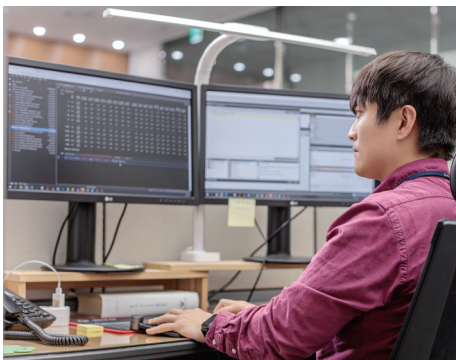
출입국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꿈꾸는 전경민 주무관 역시 그러한 인재 중 한 명. 그를 만나 데이터 분석관의 하루를 따라가 본다.

출근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전경민 주무관입니다. 우리 부서는 통계와 공공데이터 등 업무를 수행하는 총괄팀과 분석 기획 및 빅데이터 분석을 담당하는 분석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석팀에서 출입국·외국인정보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출입국 업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데이터 분석 업무도 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데이터 분석은 출입국·이민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 플랫폼 시스템이 완성되어 다양한 외국인 관련 내부 데이터 및 타 부처와 연계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출입국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확인 (8:30AM)



출근도 했으니 오전 업무를 시작해 볼까요? 출근을 하면 우선 밤새 데이터가 잘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자원이 되는 데이터들이 잘 들어와 있어야겠죠? 어쩌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업무일지도 모릅니다. 쉽게 말해, 어제 출입국 한 외국인 데이터들이 모두 빅데이터 '통'(DB)에 무사히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분석팀 회의 (10:00AM)



오전 10시가 되면 분석팀 사무관님을 모시고 팀원들과 오전 회의를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분석이라는 업무가 '혼자'서 하나에 몰입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팀원들과 얘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대단히 소중한데요. 보통 지난주 어떤 분석을 했는지 그리고 다음주는 무엇을 분석할 것인지 이야기하는데요. 요즘 저는 재외공관 비자 데이터 쪽에 꽂혀있습니다. 제가 새롭게 분석한 내용을 팀원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이 시간이 항상 설레고 기다려집니다.



점심식사 후 산책 (12:30PM)



분석관은 짧은 시간에 몰두해서 머리를 써야 하는 업무가 많아 산책을 하며 기분전환을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보통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청사 산책길을 한 바퀴 도는데요. 관악산 아래 위치한 과천청사는 공기도 좋고 사계절 조경이 예뻐서 번잡했던 머릿속이 산책 한 번에 말끔해집니다. 특히 요즘은 초겨울의 상쾌한 바람이 불어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산책을 하다보면 참신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해요.

시각화 분석 보고 (14:0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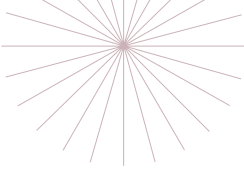
저는 시각화 분석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시각화한 자료를 사무관님께 보고드립니다. 최근에는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저희 플랫폼을 오픈*했는데요. 데이터셋 뿐만 아니라 시각화 대시보드도 만들어 함께 공개했습니다. 차트끼리 연동은 잘되는지 가시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없는지 사무관님께서 꼼꼼히 확인해 주십니다.

(* 2024.10.07.~12.31. 지자체 오픈 시범 기간)

데이터 분석 (16:00AM)



오후에는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 업무를 실시합니다. 내부기관이나 타 부처 및 지자체에서 분석 의뢰한 요청들을 처리하는데요. 자체적으로 분석 과제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 특성, 유형을 분석하거나 과거 취업비자로 체류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및 범죄이력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퇴근



드디어! 기다리던 행복한 퇴근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데이터 분석에 몰두하다 보면 머리가 지끈거리기도 하지만, 제가 수행한 분석 결과들이 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실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오늘도 한껏 뿌듯해지네요. 내일의 데이터 분석을 위해 모든 고민거리와 생각들은 청사에 남겨두고 퇴근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경민 주무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국민과 외국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는 출입국 데이터 분석관이 되겠습니다.

Mini Ch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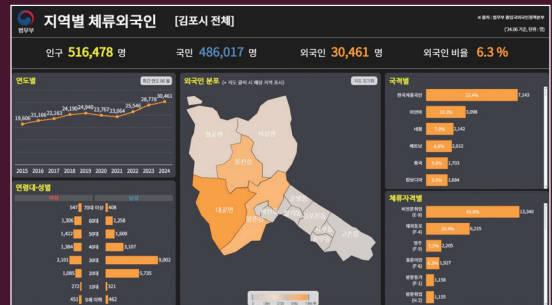


Q. 데이터 분석 업무의 매력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A. 다양한 출입국 업무의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담당해보지 못한 업무 분야의 데이터를 심도 있게 들여다 볼 기회가 보통 없으니까요.

Q. 앞으로 하고 싶은 업무나 포부를 알려주세요

A. 국적과 방문 목적을 기반으로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싶어요. 체류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다면 국내생활이 훨씬 편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자체 행정동별 장기체류 외국인(등록, 거소) 현황을 보여주는 시각화 대시보드>

한국에서 찾은 나의 길

즐기세포 연구자의 도전과 성장 인도 출신 라마크리시나 수레시



나는 인도 출신으로 현재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7년에 결혼한 후, 이듬해 아내와 함께 한국에서 즐기세포 연구에 전념하기로 결심했다. 박사 과정을 밟기 위해 처음 한국을 방문한 지 어느덧 17년이 흘렀다.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한 첫인상은 아직도 선명하다. 성냥갑만한 크기의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문화 충격을 받았다. 또한, 처음 접한 젓가락질은 내게 너무나도 어려운 도전이었다. 또 하나의 난관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다정했다. 한국어를 하지 못했던 초창기에는 전통시장에서 음식이나 채소를 구매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 생활이 훨씬 편해지고 박사 과정도 잘 마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다. 나는 학당 대신 일상 속에서 동료들과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다. 6개월이 지나자 점차 한국어로 소통하는 데 익숙해졌다. 내가 한국어로 이야기할 때마다 동료들은 "한국인 다 됐다"라는 칭찬의 말을 건넸고, 그럴 때마다 한국어를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는 의욕이 솟아났다.

학생이었던 우리 부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기에 소박한 집에서 생활을 해야 했다. 때로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한국과 어떤 특별한 인연이 닿아 있는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김지현, 서성일 부부라는 크나큰 행운을 만난 것이 그 증거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의사소통도 힘들었던 우리 부부의 사정을 헤아린 그들은 자신들의 일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분들을 한국의 부모님처럼 생각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간의 즐거웠던 일, 슬펐던 일을 함께 이야기한다. 때로는 함께 교외나 시골로 여행을 떠나 아름다운 공원과 숲, 그리고 산을 둘러보고 함께 식사를 즐기기도 한다.

인도 출신인 나에게 한국의 직장문화는 처음에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한국 직장인들은 보통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는 것처럼 보였다. 동료들은 한국인들이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설명해 주었다. 한국인들이 국가의 성장을 위해 보여준 열정은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나 역시 한국에서 열심히 노력해 무언가를 이뤄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한때는 공중전화 박스로 가서 국제전화 카드를 넣어야만 국제전화를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인도에 있는 친척들에게 국제전화 카드로 전화를 걸던 당시에는 온라인 쇼핑이 없었고, 언어장벽 때문에 길을 물어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 세대의 학생들은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영어 실력도 뛰어나다. 이제는 스마트폰과 최신 애플리케이션 덕분에 외국인들도 한국 생활을 한결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처음에는 한국 음식이 다소 낯설게 느껴졌다. 특히 미역국과



생선회는 쉽게 익숙해지기 어려웠다. 하지만 한국 생활 한 달 차에 접어들면서 한국 음식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 없어서 못 먹을 정도다. 그중에서도 삼겹살과 회는 나의 최애 음식이다.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과 식문화를 소개하기도 하고, 김장철에는 한국인 친구 집에서 함께 김치를 담그며 곁절이를 나눠 먹기도 한다.

나는 인도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인도 최대 바이오 제약 회사인 바이오콘에서 3년 반 동안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한국에서 박사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2011년 차(CHA) 의과대학교 의생명과학과에서 백광현 교수님의 지도하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양대학교 의생명과학과에서 김형범 교수님의 지도하에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2015년부터는 한양대학교에서 조교수를 맡았다.

나의 주요 연구 분야는 줄기세포의 운명 결정을 조절하는 단백질을 탐구하는 것이다. 특히, 유전자 편집 도구인 크리스퍼 캐스9(Cas9) 유전자가위를 활용하여 인간 배아줄기세포에서 유래한 폐 오가노이드에서 특발성 폐섬유화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폐질환 모델을 연구하며, 폐질환과 암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치료 약물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연구중심 대학에 재직하는 교수라면 연구, 교육, 그리고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우수성을 유지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까지 주요 학술지에 130편 이상의 논문을 성공적으로 발표했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두 차례 특별 승진 기회를 얻어 2023년에는 정교수로 임명되었다. 현재 우리 학과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핵심 연구 과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구실에서 박사후연구원 3명을 지도했고, 10명의 박사 과정 학생들이 나의 연구실에서 학위를 마쳤다. 이 자리를 빌려 연구와 한국 생활에 큰 도움을 주신 이용성 교수님과 김계성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본래 박사 과정을 마친 후 미국으로 갈 계획이었지만, 한국 문화와 한국인 부모님과 친구들이 보여준 따뜻한 사랑,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여성과 아이들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안전한 환경 덕분에 나의 한국 생활은 계속되고 있다. 나는 한국 국내 여행을 매우 좋아한다. 주말마다 가족들과 함께 서울을 벗어나 자연과 해변을 즐기며 시간을 보낸다. 우리 가족은 한국의 사계절을 매우 사랑하며, 현대화 속에서도 웃어른 공경,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전통적 가치를 잃지 않고 지켜가는 한국인의 모습이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마디로 서울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로 가득 찬, 정말 매력적인 도시이다.

From Doctoral Student to Professor

17 Years of Growth in Korea

Hello everyone, I'm Suresh Ramakrishna, an Indian professor who works at the Seoul campus of Hanyang University. I got married to an Indian woman in 2007, and the very following month we both made the decision to go to Korea for our higher studies on stem cells. 17 years have passed since we first traveled to Korea as students pursuing our doctoral studies.

I can still clearly remember my initial impressions of Seoul. The first culture shock I had was realizing that I had to live in matchbox-sized housing, and the hardest thing for me to do was eat with chopsticks. Another problem was that not many people knew English, but otherwise, everyone was kind and welcoming. I had a little trouble buying food and veggies in the traditional markets because I didn't know Korean. I then came to the realization that learning Korean would help me survive in Korea till my studies were over. I attempted studying with my coworkers every day instead of attending any Korean language schools. After six months, I finally felt comfortable using Korean to communicate. People from Korea like interacting with foreigners who speak even a small amount of Korean. When I speak with Koreans, they enjoy my pronunciation of the language and tell me that I've become nearly Korean, which motivates me to expand my Korean vocabulary.

When we first arrived in Korea as students, we were struggling financially and had to reside in a modest house. I feel as though I have a connection to Korea from my past birth. I had the good fortune to meet Jihyun Kim and Seong Il Seo, a Korean couple who understood our situation and immediately took us to their home, giving us a better place to live. Since then, I have shared a unique bond with them. I consider them as my Korean parents. We meet once a week and share our joys and

sorrows of our lives. We occasionally take trips together to the suburbs or the countryside to explore stunning parks, forests, and mountains while sharing a meal together.

I was quite shocked by the Korean work ethic because I'm from India. Koreans typically work 12-hour shifts. My coworkers informed me that Koreans put a lot of effort into their nation's economy, I became even more inspired by their enthusiasm for the nation's development. I decided that day to put in a lot of effort and accomplish something in Korea. I put a lot of effort into publishing a number of research articles while pursuing my PhD. The majority of the time, I would return home at midnight without encountering any risk or difficulties. Korea is one of the safest places in the world; my family and I never experienced any issues while traveling late at night. Once, my brand-new smartphone was misplaced at Jeju Island Park. It surprised me when I was able to retrieve my phone from the park's lost item area.

Over the past decades, Korea has undergone significant progress. We used to visit a public phone booth at the time and use international phone cards to call our relatives in India. Online purchasing wasn't available, and we had trouble asking people where we wanted to go because of the language barrier. Students of today's generation engage with foreigners politely and speak English well. Foreigners now find it much easier to stay and enjoy Korea thanks to smartphones and updated mobile applications. At first, it was a little challenging to appreciate Korean food, particularly miyeok-guk and sashimi. However, after a month, I started to like Korean food, and now I'm addicted to it, especially the samgyeopsal and sashimi. I even suggest Korean cuisine

and dining customs to my relatives and friends. On Kimchi Day, my Korean friend Mr. Hyoung wook invites me to prepare kimchi at his house, and they share the kimchi with us.

About my professional life, I earned Bachelor and Master of Science degrees from India. Following on, I worked in Biocon, India's largest biopharmaceutical company as a senior scientist for three and half years. My interest in studying stem cells research led me to pursue Ph.D. in South Korea. I earned my Ph.D. degree from the 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 from CHA University in the year 2011 under the able supervision of Prof. Kwang-Hyun Baek. Thereafter, I served as a post-doctoral researcher in the 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 of Hanyang University under the able supervision of Prof. Hyongbum Henry Kim. I started my professional career as an assistant professor at Hanyang University, Korea in 2015.

My research is mainly focused on identifying proteins that regulate the cell fate determination of stem cells. Using the gene editing tool CRISPR/Cas9 we are generating several lung disease models, such as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an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in lung organoids derived from human embryonic stem cells and developing novel effective therapeutic drugs to prevent lung and cancer disease (www.surilab.com).

I strongly believe that as a professor at a large, research-oriented university, one should strive to achieve a goal while retaining a high level of excellence in all aspects of research, education, and service. Till to date, I have successfully published more than 130 articles, including research, chapter, and review articles in leading journals. My research accomplishments earned me two special promotions, which led to my tenure as a professor in 2023. Regarding research education, I undertake core study courses especially for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in our department. Till to date, I have advised three post-doctoral researchers and graduated ten doctoral degree students from my laboratory. I want to express my gratitude to Professors Yong-Sung Lee and Prof. Kye-Seong Kim, who have been instrumental in my career and have helped me settle in Korea for a long time.

After my education, I was planning to move to the USA, but the Korean culture, love from my Korean parents and Korean friends, my job position, research activities in my laboratory, and finally the safety of this country for women and children made me stay in Korea for a long time. I love traveling within Korea. I usually take my family on weekends to the outskirts of Seoul to enjoy the nature and beaches. Our family loves to enjoy all four seasons in Korea. I am struck by the fact that even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Koreans have continued to embrace their traditional values, such as respect for elders, discipline, family relations, and impeccable hospitality for guests. Overall, Seoul is a great city to live in, with so much to experience and plenty of opportunities to make new friends and memories.



국내 체류외국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각종 신고 의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고용, 이사, 인적 사항 변경 등 일신상의 변화가 있을 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서 등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체류외국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각종 신고 의무를 알아보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01

고용주 신고 의무

- ① (대상)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C-4, E-1~E-10, H-2) 외국인을 고용한 자/ 외국인 기술연수업체의 장
-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한 날부터 15일 이내
- 외국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
-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
- 고용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



02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 ① (대상) 등록외국인, 거소신고자
 - 인적사항 및 여권정보 변경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이나 추가(D-1, D-2, D-4~D-9)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여부
 -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 변경(D-10)
 - 취업 개시 사실 및 업체 변경(H-2)
 - 직업 또는 연간소득금액의 변경(D-7~D-9, F-2, F-4, F-6)
- ⇒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03

체류지변경(국내거소이전) 신고

- ① (대상) 등록외국인, 거소신고자
- (등록외국인)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국내거소신고자) 거소이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새로운 체류지의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의 주민센터, 새로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 방문 또는 전자민원으로 신고
- 체류지변경신고서, 국내거소이전 신고서, 체류지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제출

04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 및 신고

- ① (대상) 외국인이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학교의 장
- 유학생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출입국관서에 통보
- 매 학기 등록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 해당 등록기한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 휴학 신고: 휴학일로부터 15일 이내
- 제적하거나 유학 또는 연수 중단 신고: 제적하거나 유학 또는 연수를 중단시킨 날부터 15일 이내



Essential Reporting Obligations

Every Foreign Resident in Korea Should Know!

Foreign nationals residing in Korea are required to report their employment, relocation, changes to their identification details, or any other personal changes to an immigration office with jurisdiction over their place of residence in accordance with the Immigration Act. As the failure to comply with these reporting obligations may result in civil penalties, it is essential to take note of the details of these obligations in advance. Let's have a look at reporting obligations every foreign resident should be aware of.

*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HiKorea" website (Information Sharing Corner - Immigration/Stay Guide - Obligations to Report).

01

Reporting by Employers who Employ Foreign workers

Applicable to: An individual who employs a foreign worker (C-4, E-1 to E-10, or H-2 visa holders) or the head of an enterprise that provides a foreign worker with industrial technology training

- Within 15 days of the dismissal or retirement of a foreign worker
- Within 15 days of the employer becoming aware of the death of the foreign worker
- Within 15 days of the employer becoming aware that the whereabouts of the foreign worker cannot be ascertained
-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any significant changes to the terms of the employment contract

02

Reporting Changes to Registered Information for Foreign Nationals

Applicable to: Registered foreign residents and F-4 visa holders

- Changes to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or passport details
 - Changes to or addition of an affiliated organization or group (D-1, D-2, or D-4 to D-9 visa holders)
 - Enrollment status in schools under the Article 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 Commencement of training or changes to training institution (D-10)
 - Commencement of employment or changes to workplace (H-2)
 - Changes to occupation or annual income (D-7 to D-9, F-2, F-4, or F-6)
- ⇒ Must report within 15 days of any changes

03

Reporting a Change of Place of Residence

Applicable to: Registered foreign residents and F-4 visa holders who have reported their domestic residence

- (Registered foreign residents)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moving-in
- (F-4 visa holders)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moving-in
- Submit a report on the change of place of stay by visiting the city hall (si), county office (gun), district office (gu), or the community center of the eup, myeon, or dong with jurisdiction over the new place of stay, or by using electronic petition services
- Must submit the Application Form for Alteration of Residence or the Change of Address Notification Form for Overseas Koreans, along with documents proving residence (such as lease or rental agreements and purchase contracts)

04

Management of International Stud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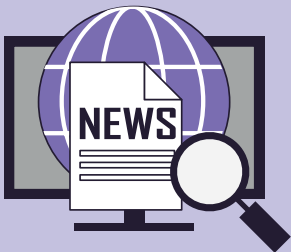
Applicable to: The head of a school where a foreign national is enrolled as a student or trainee

- Must designate a person in charge of managing international students and report this to an immigration office
- File a report if an international student fails to register by the registration deadline of each semester: within 15 days from the day following the registration deadline
- File a report if an international student takes a leave of absence from school: within 15 days of the leave date
- File a report if an international student is expelled or their study or training is discontinued: within 15 days of the date of expulsion or suspension

KIS NEWS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4 Winter Vol. 70



법무부 장관,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 만남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 11. 21.(목) 법무부에서 ‘싸랏싸는 우노폰’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만나, 태국인 입국거부 및 불법체류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양국 간 출입국·이민 분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출입국 직원, ‘2024년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24. 12. 10. 세계인권선언 76주년 기념식에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최진우 주무관이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했다. 최진우 주무관은 몸이 불편한 보호외국인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보호외국인의 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인권상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의 열정을 기리고,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수여하고 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최진우 주무관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포함) 발급 수수료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식별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실물 외국인등록증에 저장하기 위해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며, 전자칩(IC) 내장에 따른 발급단가 상승으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포함) 발급 수수료가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현행) 3만 원 → (인상 후) 3만 5천 원
기준에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은 유효기간 만료 등 별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교체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본인이 신규 외국인등록증으로 재발급을 희망할 경우 인상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2개월 연장



법무부는 보다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스스로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재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24.9.30.~11.30.)」을 ‘25. 1. 31.까지 2개월간 연장 운영한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시작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천하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기술창업(D-8-4) 비자와 차별화하여 비자 발급 요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였다.

농·어촌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추진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
- 최소임금보장기준 합리적 조정
- 결혼이민자 초청방식 개선
- 계절근로 체류자격 통합 등 운영 효율화
-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 강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다시, 세계인의 날 개최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24. 10. 8.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오픈시네마에 이민자 500명을 초대하는 제1회 「Again, Together Day(다시,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세계도시 부산의 시민들과 이민자들이 영화로 서로 공감하고 문화적으로 하나되는 기회를 마련했다.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 수상에 빛나는 봉준호 감독이 축하영상을 전달해 오기도 했다.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이 알려주는 한국생활 필수 정보

한국 생활의 첫 관문

출입국 민원 절차 쉽게 이해하기

한국살이를 막 시작하는 외국인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복잡해 보이는 민원 절차는 한국 생활이 낯선 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곤 한다.

한국 생활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출입국 행정업무. 초기 이민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출입국 민원 절차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이 나섰다.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이면 한국살이 30년 차가 되는 일본 국적 다키 유카리입니다. 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으로 이민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통합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출입국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를 방문해야 했는데, 며칠 전부터 긴장하고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알고 나면 쉬워지는 법이죠. 한국 생활이 아직 낯설고 어려운 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출입국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출입국 업무의 첫 단계, '외국인등록절차'를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저와 함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가볼까요~?

STEP 01



외국인등록절차 관련 안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체류민원실에 들어오면 업무처리 순서에 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체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진우 주무관님과 함께 안내 표지판의 업무처리 순서에 따라서 외국인등록절차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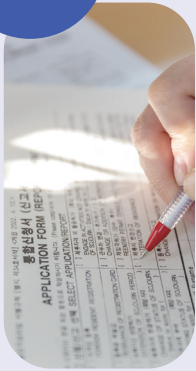


예약 명단 확인

현재 모든 체류 민원은 전면 방문예약제로 실시되고 있어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꼭 본인의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미리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방문예약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매일 방문예약자 명단을 민원실 입구에 게시하고 있어 미리 예약을 했다면 민원실 입구에 있는 예약자 명단에서 본인의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약을 하고 왔는데요. 여기 제 이름이 있네요! 명단을 확인하고 보니 명단의 바로 아래에 있는 예약자와 비 예약자로 나뉘는 유도선이 눈에 띄네요. 저는 예약을 했으니, 노란색 예약자 유도선을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을 하지 않았다면 붉은색 유도선을 따라가시면 되겠죠?

STEP 02

STEP 03



통합신청서 작성

노란색 선을 따라 이동하면 통합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본인의 방문 목적에 맞게 통합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외국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꼭 통합신청서 우측 상단에 사진을 붙여야 합니다. 사진을 깜박하고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는 1층과 3층에 사진 촬영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STEP 04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납부

외국인등록을 하면 카드처럼 생긴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는데요. 이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바닥의 파란색 유도선을 따라 ATM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화면을 보니 '외국인등록증 발급수수료 납부'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여권을 스캔하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데요. 수수료는 현금으로만 가능하니 유의해 주세요! 여권을 스캔해야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으니, 여권이 꼭 있어야겠죠? 등록증을 만들지 않을 때도 출입국사무소에 올 때는 여권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에 다시 다녀와야 할 수도 있으니 명심하세요~

※ 2025년 1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포함) 발급 수수료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존) 3만원 -> (변경) 3만 5천원

STEP 05

통합신청서 제출하기



이제 신청서도 작성했고, 수수료도 납부했으니 정말로 신청하러 가볼까요? 대기석에 앉아 기다리다 보면 제가 예약한 번호가 창구 위 번호판에 뜹니다. 번호를 확인하고 창구로 가서 준비한 여권과 서류,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아무 문제 없이 지문까지 찍으면 외국인등록 신청 절차는 모두 끝이 납니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니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혹시나 외국인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헷갈린다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전화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을 문자로 보내주기도 한다고 하니 정말 편리하겠죠?



바로민원실 및 우수인재·투자지원센터 소개

가을을 맞아 서울출입국·외국인청도 새로 꽃단장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장소가 법무부의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민원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11월 4일부터 개소한 ‘바로민원실(Express Service Center)’과 ‘우수인재 창구’입니다.

〈바로민원실〉을 소개합니다!

말 그대로 민원을 바로바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야심차게 개소한 새로운 민원실입니다. 민원인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1층에 외국인등록(번호 부여), 각종 증명발급 및 신고 업무 등을 통합 운영하여 접수 즉시 당일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업무처리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우수인재·투자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1층에 있던 복잡한 우수인재 창구를 2층의 별도 공간으로 확장 이전하여 충분한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우수인재 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확대하여 우수한 외국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현행) A-1, A-2, D-8, E-1, E-3~E-6(E-6-2 제외)
 ⇒ (확대) E-7-1(전문인력), F-2-7(점수제 우수인재) 추가

그 외에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민원업무 처리시 체류허가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의 통일성과 민원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특히 3월, 9월 등 학기 초에 집중되는 유학생 업무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현지 방문처리 확대, 대학별 접수일자 지정 등 다양한 민원 혼잡도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편리해질 출입국민원 업무를 기대해주세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에서는 외국인등록, 비자 연장 등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민원인의 한국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작은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정확한 업무 처리가 중요하기에, 체류 심사관들은 항상 규정을 준수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류심사 경력 3개월 차 신규 직원으로서, 체류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실현하고, 체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 **김진우** 주무관

120년 의료,
선교역사를 만나다

동산의료원
의료선교박물관

DAEGU DONGSAN HOSPITAL



격동의 시기인 1900년대, 한반도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다. 선교사들은 기본적으로 포교를 위해 한반도를 방문했지만, 의료와 문화, 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조선과 대한제국에 많은 영향을 주며 변화를 선도했다. 서양식 병원을 세워 치유와 보살핌에서 소외되어 있던 대중들에게 만연했던 질병의 두려움을 희석시켰고, 학교를 세워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사상을 전파하기도 했다. 실제로 선교사들이 교육과 의료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 학교의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 대구 계명대학교의 동산의료원이 대표적이다. 동산의료원은 대구·경북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제중원에서 유래된 의료원으로 1899년, 의료선교를 펼치던 존슨 선교사가 설립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수많은 환자들을 보듬어 안으며 한반도에 서구식 의료기술을 전파했던 동산의료원은 1999년, 개원 100주년을 맞아 의료원 내에 있는 선교사 사택을 의료선교박물관으로 개관했다. 대구 근대화의 역사와 선교사들의 의료·선교 활동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동산의료원 의료선교박물관을 소개한다.



**계성학교 학장들의 집,
선교박물관(선교사 스위트주택)**

대구에서 본격적인 선교활동이 이뤄지던 1906년부터 1910년경에 건축된 선교사 주택이다. 대구읍성 축조 때 사용된 성돌을 철거때 가져와 사용했으며 서양식 주택에 한국식 서까래와 한식기와를 이은 박공지붕 형식을 취하고 있다. 계성 중고등학교의 전신인 계성학교의 학장들이 기거했던 주택으로 마르타 스위트(한국명: 성 마르다) 선교사를 비롯해 헨더슨(한국명: 현거선) 선교사, 캠벨(한국명: 감부열) 선교사 등이 거주했다. 현재 1층에는 각종 성경과 선교유물을 비롯, 기독교의 전래 과정을 알 수 있는 사진 자료가 전시되어 있고, 2층에는 구약·신약 관련 소품들을 관람할 수 있다.

- 문의 : 053-250-8881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한국 최초의 피아노가 있었던 곳,
의료박물관**(선교사 챔니스 주택)

선교박물관과 같은 시기에 지어진 저택으로 붉은 벽돌 쌓기 형태로 만들어진 2층 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의 방갈로풍 건물로 1940년대 미국인 주거양식을 잘 보여준다. 계성학교 2대 교장인 레이너(한국명: 나도래)와 챔니스(한국명: 차미수), 사우텔(한국명: 사우대) 선교사 등이 거주했으며 1948년부터는 하워드 마펏(한국명: 마포화열) 선교사가 살았다. 한국에서 최초로 피아노를 들여와 이를 보기 위한 구경꾼이 많았던 장소이기도 하다. 당시에는 '소리 나는 귀신통'으로 불렸으며 의료선교사인 존슨 박사의 가족들이 주로 이용했다고 한다. 1800년대부터 1900년대에 사용된 동서양의 수많은 의료기기가 남겨져 있다.

- 문의 : 053-250-8881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대구·경북 최초의 근대식 병원,
제중원 재현**

동산의료원의 기원이 된 대구·경북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제중원은 1899년, 의료선교를 펼치던 존슨(한국명: 장인차) 선교사의 손에서 시작되었다. 존슨 선교사는 대구의 첫 교회인 제일교회 예배당 옆에 하인들이 쓰던 작은 초가집을 고쳐 '미국약방'이라는 간판을 달고 약을 나눠주었다. 미국약방은 존슨 선교사가 미국에서 주문한 약품이 들어오면서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고,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제중원은 나환자 구제사업, 풍토병 치료, 천연두 예방접종 등 사회보건 계몽운동을 통해 서구 열강과 일본 제국의 식민지 정책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보금자리로 기능했다. 이에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개원 125주년을 맞아 올해 6월, 초기 제중원의 모습을 재현해 준공하고 마당에서 봉헌식을 개최했다.





미국 방갈로풍을 고스란히 간직한 교육역사박물관(선교사 블레어 주택)

선교사 3주택 중 가장 남쪽에 있는 집으로 붉은 벽돌로 지은 2층 집이다. 내부의 건축재료를 일부분 바꾼 것 외에는 미국 방갈로풍에 가까운 건축 초기의 형태와 구조가 잘 남아있는 집이다. 허버트 블레어(한국명: 방혜법) 선교사와 로버트 라이스(한국명: 나익수) 선교사가 거주했던 집으로 현재는 다양한 민속자료와 시대별 교육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더불어 대구 3·1혁명의 발자취와 일제의 만행을 알 수 있는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 대구 3·1독립혁명 역사관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 문의 : 061-755-1277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대구 교육의 산실, 계성학원

대구를 대표하는 교육기관인 계성 초·중·고등학교와 계명대학교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계성학교, 혹은 계성학원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학교를 설립한 이가 대구·경북 지역 복음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임스 에드워드 아담스(한국명: 안의와)다. 1896년 11월에 대구 선교 업무를 인계받아 한국을 방문한 그는 대구 최초의 교회인 제일교회를 설립하고 1899년에는 존슨 선교사를 도와 제중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더불어 1900년에는 교회 내에 소학교를 설립했으며 1906년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계성학교를 설립한다. 현재 계성고등학교의 전신이 된 학교로 1908년에는 영남 최초의 신식 건물이자, 3·1운동 때 독립선언서 낭독 장소로 활용된 아담스관이라는 교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건강 악화로 고향으로 돌아간 뒤에도 아들들에게 한국의 선교를 맡겼다. 이에 장남인 에드워드(한국명: 안두화)가 1921년 한국에 입국, 대구에서 선교활동을 전개했으며 1954년에는 최재화 목사, 강인구 목사 등과 함께 계명대학교를 설립했다.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소식을 만나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SNS 소식

#1

2025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달력 제작

facebook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24년 시행한 주요 정책을 테마로 2025년 달력을 제작하였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SNS 채널을 소개합니다. 공식 페이스북·유튜브·카카오톡채널에서 본부와 출입국·외국인 정책 소식을 가장 쉽고 빠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2

공트로 알려주는 출입국심사 꿀팁

YouTube



편리한 출입국심사 정보를 알리기 위해 이민자 멘토단이 연기에 도전하였습니다. 재미있는 공트를 통해 출입국심사 꿀팁 얻어주세요~

페이스북



@immigration.kr

유튜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카카오톡채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SNS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 카드뉴스 등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KIS 1345’로 물어보세요! 출입국·외국인정책에 대한 궁금한 점을 알려드려요

- Q** 저는 영어회화 강사로 일하고 있고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계약이 만료되어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요. 완전출국 절차가 궁금합니다.
- A** 출입국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완전출국을 하는 등록외국인은 반드시 출국심사를 받을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Q** 이번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요. 한국 여권을 아직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 입국할 때 사용해도 될까요?
- A** 『국적법 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며 『여권법 13조』에 따라 대한민국 여권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유효하지 않은 여권으로 입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재외공관 또는 국적업무 담당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여 국적상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Q** 가족 방문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입니다.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상태인지 미리 알고 싶은데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 A**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여 신원확인 후 본인의 출국금·정지 확인이 가능

합니다. 단, 국민의 경우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하이코리아를 통한 온라인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수행 변호인은 본인의 위임을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출국금·정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 변호인신분증, 변호인선임계, 본인 신분증 사본 및 신청서(출국금·정지 조회요청서)

- Q** 남편이 한국에서 대학교수로 재직하게 되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현재 임신 중이고 한국에서 출산할 예정인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 A**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인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를 방문하여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 Q** 서울 소재 대학을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인데요. 방학기간 동안 생활비를 벌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유학생 비자는 일을 하면 안되나요?
- A** 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활동에 한하여 소속 대학 확인 및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취업활동을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주중 25시간~35시간의 취업활동이 가능하며, 방학 중에는 시간의 제한 없이 시간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재한외국인의 행정·생활정보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상담시간 : 평일 09:00~22:00 (한국어 포함 20개국 안내 / 야간 18:00 이후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안내 운영)

대표전화

일반전화, 휴대폰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45로 연결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4 Winter
Vol. 70

EVENT #1

1. 독자 의견

2024년 <공존> 겨울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재미있는 콘텐츠, 유용한 정보, 아쉬웠던 점 모두 좋습니다. <공존>은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참여 기간** 2024년 12월 18일(수) ~ 2025년 1월 3일(금)
- 참여 방법**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 계정 or 유튜브 계정을 팔로우(구독)
 2. 페이스북 공존 이벤트 게시글 or 유튜브 <공존> 티저영상 게시물에 '좋아요'
 3.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이벤트 혜택** 독자 의견을 주신 분들 중 5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당첨자 발표** 2025년 1월 8일(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세요!

EVENT #2

2. 퀴즈 타임

QR코드를 스캔해 퀴즈 정답을 맞춰주세요.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Q. 출입국·이민정책 수립에 필요한 빅데이터 생성, 관리, 분석 등을 담당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부서는?

- ❶ 체류관리과 ❷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❸ 이민조사과 ❹ 난민정책과

빠르고 간편한 독자 퀴즈 참여 방법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서 <공존>에 관한 독자 의견과 퀴즈 정답을 남기면 참여 완료!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언어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국내 체류외국인에게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이용대상 | 국내에 거주 중인 모든 외국인

- 체류자격, 불법체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이 이용 가능
-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초기 귀화자도 이용 가능



상담절차 | 법무부 산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가 상담 지원

상담 절차도



① 외국인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법률상담 요청

외국인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에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언어를 선택하고, 법률상담을 요청

② 외국인과 마을변호사 상담 연결

통역필요 여부에 따라 변호사와 직접연결 또는
외국인→상담원→변호사 3자통역을 진행함

상담범위 | 임대차계약, 산업재해, 범죄피해 등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모든 생활법률 문제에 대해
상담 가능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상담 사례

<이혼 후 자녀양육권>

📄 문의 내용

국제결혼 후 부부관계 등 가정문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피상담자가 이혼 후에 친모인 자신이
자녀(4세)에 대한 양육권을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

📄 부부 관계와 양육권은 별개 문제임을 설명

양육권은 아이를 키우는데 더 적당한 사람에게 부여하며, 부부관계는 두 사람간의 문제로 양육권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양육권을 갖기 위해서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나 양육계획 등이 필요함을 안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